

배포 일시	2022. 12. 6.(화)		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 항행시설과	책임자	과 장 김동준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 양창생 (044-201-4357)
		담당자	주무관 권용희 (044-201-4359)
보도일시	2022년 12월 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6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ICAO와 위성 등을 활용한 미래 항공안전 방안 모색 - 제31회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개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월 7일 ‘위성 등 항행안전시스템 미래 발전 전략’이라는 주제로 「제31회 항행안전시설\* 국제 세미나」를 개최 (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)한다고 밝혔다.

< 항행안전시설의 역할 >



\* (항행 안전 시설)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거리·방위각·착륙각도·공항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필수 항행시설

- 올해 31회째를 맞는 ‘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’는 정부와 산·학·연 간 항행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으로 항공안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.

□ 이번 세미나에서는 ICAO\* 아태지역 사무소와 EASA\*\*의 국제전문가를 영상으로 초청하여 미래 항행시스템 발전방향과 유럽의 위성항법기술 활용사례 등을 발표하며,

\*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(국제민간항공기구)

\*\*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(유럽항공안전청)

○ 대한민국의 산·학·연 전문가들은 도심항공교통(UAM), 무인항공기, 드론 등 신 항공교통 수단의 관제와 운영을 위한 항법기술, 3D 통합관제시스템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국산위성 개발, 우주사업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, 추가 기술혁신 과제,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위성을 이용한 기술발전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, 국내 항공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” 면서,

○ “국토교통부는 `23년 항공위성서비스(KASS)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며, 아울러 위치 산업분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” 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 항행시설과	책임자	과 장 김동준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 양창생 (044-201-4357) 주무관 권용희 (044-201-4359)

**참고****제31회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일정** **세미나 개요** (온라인 + 오프라인 Hybrid로 진행)

- (주제) 위성 등 항행안전시스템 미래 발전 전략
- (일시/장소) '22.12. 7.(수), 13:20~17:20 /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
- (참석) 국토부(항공정책실장 개회사(영상)), ICAO·EASA·DFS 등 해외기관, 양 공항공사, 민간, 연구기관 등 약 400명(현장 100명, 온라인 300명)

 **주제발표** \* 상기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**세션 1 : 글로벌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전환 전략**

①	ICAO 미래 항행시스템 전환 추진 전략	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
②	DFS 성능기반 항행시스템 개발동향 및 관련 이슈	DFS(독일 공항공사)
③	EGNOS(유럽의 항공위성) SERVICE	EASA(유럽항공안전청)

**세션 2 : 위성 등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서비스**

①	항공위성서비스(KASS) 제공 계획	국토부(항행시설과)
②	도심항공교통시스템(UAM)의 항행시스템 활용 방안	국토부(도심항공정책팀)

**세션 3 : 국내 항행안전시스템 개발 및 연구 동향**

①	국방 우주기술 개발 현황(레이더, 통신 등)	한화시스템
②	국산위성 개발 등 우주사업 개발 현황	항공우주산업(KAI)
③	인천공항 항공교통 3D 통합관제시스템 개발	인천공항공사
④	SWIM 기반 항공기 착륙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	한국공항공사
⑤	UAM 대체항법시설 개발 현황	한국공항공사